

# 내가 사는 곳에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으니

## 先人 향기 품은 湖南學 산책

### 옛 그림 이야기 남농 허건의 '낙지론'(樂志論)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기획한 '호남학산책'은 우리 고장의 사상과 문화, 생활의 지혜와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인문학 산책길이다. 호남 문화의 특성을 글빛 향내음으로 시·도민에게 배달하는 장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2019년부터 호남의 역사, 문화, 문화재, 사상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시·도민과 산책길을 걸어왔던 내용을 이제 광주매일신문사와 함께 지역민에게 더 폭넓게 전하고자 한다. '선비, 길을 열다', '근대유학문선', '고문서와 옛 편지', '명시초대석' 등 선비의 사상과 문화를 중심으로 다뤘던 내용을 앞으로는 '맛 기행', '옛 그림 이야기', '문화재', '佛家別傳', '풍경의 기억' 등 다양한 호남문화의 소재를 활용해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연구기관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과제이기 때문에 호남 한국학의 대중화와 다양성이 잘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호남 한국학을 통해 호남인의 자존이 제고되고 '호남학산책'이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남농기념관에 소장된 허건의 '낙지론'이라는 그림이다. '낙지론'은 후한(後漢) 시대의 학자이자 고사(高士)였던 중장통(仲長統, 179-220)이 쓴 문장으로, 허건은 이 글을 화제시로 써놓고 그림을 그렸다.

내가 사는 곳에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으니 산을 등지고 냇물을 굽어보며 도랑과 연못이 둘러 있다. 주위는 대나무와 나무들이 둘러싸고 앞에는 타작마당과 채소밭이 있으며 뒤쪽에는 과수들이 심어져 있다. 건너나 건너는 것을 대신해 배와 수레가 있고 수고를 대신해 줄 이인들이 있으며 부모님을 봉양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처와 자식을 수고롭게 할 일이 없다. 좋은 벗들이 모이면 술과 안주를 차려 즐기고 좋은 때나 좋은 날이면 양과 돼지를 삶아 조상에 바친다. 동산 위를 거닐기도 하고 숲에서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맑은 물에 몸을 씻고 시원한 바람을 쓰이며 해엄치는 잉어를 낚고 높이 나는 기러기를 활로 쏘아 잡는다. 기우제 제단 아래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방안에선 정신을 가다듬고 노자의 현허(玄虛)를 생각하고 조화의 정기를 호흡하며 지인(至人)의 경지를 구한다. 깨달은 몇몇 사람과 도를 논하고 책을 강론하며 고금의 역사와 인물을 평한다. '남풍가'의 우아한 곡조를 연주하고 청음(淸音)과 상음(商音)의 오묘한 가락을 연주하며, 한 세상을 유유히 살며 천지 만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시대의 책임을 맡지 않고 타고난 생명을 길이 보존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을 넘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랴!

윤림산방 주인 남농

### 은일한 삶에 대한 동경

중장통의 '낙지론'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을 찬미하는 글이다.

낙지(樂志)란 '자신의 뜻대로 즐거워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에 '어찌 제왕의 문에 들을 부러워하랴(豈羨夫入)'



허건 '낙지론' 112×308cm, 종이에 수묵담채(1960년) 남농기념관

帝王之門哉?) 라는 대목에서 세속적 출세보다는 은일한 삶에 대한 동경과 개인의 평안, 행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이 글을 쓴 중장통은 중국 후한 말의 정치가이다.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세상에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41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젊은 시절에 이미 인생을 일찍 달관했기 때문인지 '낙지론'을 읽어보면 유유자적 즐기며 욕심이 연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노래한다.

'낙지론'을 주제로 그린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은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의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이다.

※조지윤, '단원 김홍도 筆 <三公不換圖> 연구-1800년 이후 김홍도 회화의 변화와 간재 홍의영', 『미술사학연구』275-276호(한국미술사학회, 2012), pp. 149-175.

이 그림은 1801년 12월 순조가 수두에 걸렸다가 쾌차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삼공불환도'에는 간재 홍의영(長齋 洪儀泳, 1750-1815)이 송대(宋代)의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하고 중장통의 '낙지론'으로 제발을 썼다. 삼공불환(三公不換)은 전원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김홍도가 그려낸 이 그림은 '낙지론'의 내용을 화폭에 구현해내고 있다.

'삼공불환도'는 4m가 넘는 큰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



허건 작 '청음'(淸音), 94×325cm(8폭병풍), 종이에 수묵담채(1971년) 남농기념관

다. 큰 화면에는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넓은 저택과 논밭 등 여러 가지 정경이 그려져 있다. 저택에는 손님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평상에 누워 있는 선비, 배를 짜고 물레를 돌리는 아낙, 집안 한 칸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과 누각에 앉아 바깥 경치를 구경하는 선비의 모습이 보인다. 마당에는 사슴, 학, 닭, 개가 노닐고 연못에는 오리나 한가롭게 떠다닌다. 담 너머 집 밖의 너른 논밭에는 열심히 밭을 매는 농부와 낚시 중인 이가 있다. 멀리 물가의 풍경까지 김홍도는 전원생활의 한가로운 정취를 화면 가득 담아냈다.

'낙지론'에 담긴 선비의 생활을 산수화와 풍속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전원생활의 모습으로 충실하게 표현한 것이다.

### 다도해를 닮은 남농산수

허건은 김홍도의 '삼공불환도'와는 다르게 풍속적 장면 없이 산수화로서 '낙지론'을 그려냈다. '삼공불환도'에서 보이는 선비의 일상이나 집안의 정경 등 풍속적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낙지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 다만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뿐이다.

'낙지론'은 옆으로 긴 형태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구도를 보여준다. 한쪽에는 근경을, 다른 한쪽에는 원경을 두고 그 사이를 강이나 바다가 가로지른다. 근경 언덕에 소나무와 잡목을 그리고, 그 뒤로 커다란 주산(主山)을 중앙에 뒀다. 화면 오른쪽으로는 섬들 사이를 유유히 항해하는 돛단배 몇 척이 저 멀리 이어지는 원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비탈진 아트막한 언덕에 소나무와 잡목, 몇 채의 가옥을 배치하는 구도는 남농 산수의 전형이다.

갈필을 이용해 주산과 잡목을 처리한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군데군데 배치된 나무와 수풀의 처리에서 빠른 붓놀림을 느낄 수 있다. 거칠고 빠른 붓질을 반복해 돌필(禿筆)은 허건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독필(禿筆)은 오래 사용해 붓끝이 닳아서 무더진 붓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끝이 갈라져서 거칠고 빠른 효과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房主人)이라는 아호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를 여행다니며 주변의 일상적인 농촌경경을 비롯해 심산유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취하여 실경을 사색한 그의 산수화에는 현실에 대한 애착이 짙게 나타난다. 이 무렵 허건의 화풍은 그 전에 그린 일본화풍이나 고답적인 화보풍의 산수화와는 다른, 그가 매일 보는 주변의 풍경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것으로 고즈넉하면서도 아늑한 정취를 자아낸다.

허건은 저서인 '남종회화사'(南宗繪畫史)에서 자신의 화풍을 '신남화'(新南畫)라 칭하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신남화풍을 찾으려 했다.

"내가 추구할 그림의 주제는 조선의 풍토에 맞는 신남화를 개척하려고 고심참담하였으나 지금도 성가(成家)를 못함은 부끄럽다. 그래서 조선의 산천, 조선의 전원정서를 그려보고 조선의 인물을 그려보고 굳게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허건, '남종회화사'(서문당, 1994), p. 309.

허건이 추구한 신남화는 관념적 남종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실경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려 한, 즉 한국의 정서를 바탕으로 순수한 우리의 정경을 그리는 것이었지 않을까.

### '남쪽에서 농사짓는 이' 남농 허건

허건은 할아버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9-1892)과 아버지 미산 허형(米山 許瀾, 1862-1938)의 영향 아래 전통화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화풍을 수용해 목포화단의 축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화가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허건은 의재 허백련의 스승이었던 무정 정만조로부터 '남쪽에서 농사짓는 이', 즉 '남농'이라는 아호를 받았다.

1930년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 동양화부에 입선하여 화단에 이름을 알린 허건은 1944년에는 '목포일우'로 선전 총독상을 수상했다. 해방 이듬해(1946년)는 '남화연구원(南畵硏究院)'을 열어 후진을 양성했다.

아산 조방원(趙邦元, 1926-2014), 청당 김명제(金明濟, 1922-1992), 도촌 신영복(稻村 幸永卜, 1933-2013) 등 걸출한 화가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됐다. 허건은 제자들에게 '내 그림을 본뜨지 말고 개성 있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제자들 역시 허건의 필법과는 다른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 중견작가로 성장했다. 또한 각자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와 함께 1957년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백양회'를 비롯한 단체전과 광주·전주·서울·제주 등 경향 각지에서 개인전 혹은 초대전을 통해 전시활동도 왕성하게 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에 추천작가·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말년에는 예술인 회원이 됐다. 전라남도 문화상(1956), 목포문화상(1960), 5·16민족상(1977) 등 많은 상도 수상했다.

허건은 전통산수를 비롯한 고사인물, 화조, 영모, 풍속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다. 일본에서 유학한 동생 허림의 영향으로 채색 위주의 분위기 묘사에 뛰어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전통적인 산수화의 맛과 현실적 시각을 조화시키는 실경산수를 비롯해 소나무 그림들을 남겼다.

허건이 그려낸 '낙지론'은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전원의 일상일 수도 있다. 비록 이상적인 선비의 은일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닐지라도, 허건의 그림에는 나지막한 민가와 배를 저어가는 뱃사공의 일화가 담겨있다. 우리네 정겨운 삶터를 낙지론에 빌려 이상화시켜낸 셈이다.

필자 김소영은...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미술사학과에서 '고승유수관도인 이인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홍도 작 '삼공불환도' 8폭병풍, 건본수묵담채, 133×418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2000호)